



선동열 KIA 감독 'V11 출사표'

# “공·수·주 최강 전력… 목표는 우승”

“올해는 우승이다.”  
 친정팀에서의 두 번째 시즌을 앞둔 KIA 선동열 감독이 V11을 향한 출사표를 던졌다. 미디어데이에서 “일 한번 내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던 선동열 감독은 28일 “우승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 전력도 좋고 목표는 우승이다”고 다시 한번 V11에 대한 욕심과 자신감을 보였다.

선 감독은 마무리캠프와 스프링캠프 그리고 시범경기를 거치며 V11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타선의 부상탈출로 인한 전력의 안정화와 쉬어갈 곳 없는 타선의 완성, 탄탄한 수비구축까지 KIA의 2013시즌 준비는 끝났다. 우승을 위한 마지막 전력은 ‘부상’이다.

선 감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도 둘째도 부상이다”고 부상을 강조했다.

부상에 따른 기상도는 타선 맑음, 마운드 흐림이다. 타선의 부상병이 모두 자리로 복귀한다면 FA 대어 김주찬까지 더해지면서 선 감독은 개막 엔트리를 작성하면서 행복한 고민을 했다.

선 감독은 “외야는 5명을 생각했는데 페이스가 좋아 6명을 넣었다. 이를 대신 실력으로 선수들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막전 김원섭의 선발 출전이 유력하지만 최근 실력으로는 신중일이 선발이다. 김상현이 밀릴 수도 있는 경쟁체제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내야의 백업 경쟁도 치열했다. 1루수 최희섭, 2루수 안치홍, 유격수 김선빈, 3루수 이범호로

1번부터 9번까지 막강 타선

탄탄한 수비도 구축

중요한 것은 부상 선수 없어야

선수들 잘 해줄거라 믿어

내야를 구성하는 KIA는 백업요원으로 홍재호와 루키 고영우를 선택했다. 노련한 박기남은 엔트리 재등장에 10일의 기간이 필요한 만큼 흑시 모를 내야의 부상 대비책으로 고심 끝에 대기 요원으로 엔트리에선 제외해두었다.

문제는 선발의 부상이다. 윤석민과 김진우가 어깨 통증으로 1군 등복 날짜가 미확정 상태다. 김진우는 일단 27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첫 실전 피칭을 하며 몸을 풀 만큼 2군에서 마지막 감각을 조율한 뒤 4월 초 복귀를 한다. 윤석민의 어깨가 초반 KIA 성적의 관건이다.

선 감독은 “(윤석민)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선발이 두 명이 빠지면서 초반 싸움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우선 5할 승률을 목표로 운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범경기에서 선발 테스트를 받았던 좌완 임준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임준섭은 김진우와

윤석민의 합류 전까지 선발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좌완 박경태도 선발로 자리를 할 예정이다.

선발진의 부상 속에 불펜 구성이 아직 진행형이라는 것이 선 감독의 고민이다. 하지만 박지훈의 상승세와 마무리 앤서니의 순조로운 적응이 반갑다.

선 감독은 “불펜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고 약점이다. 다행히 박지훈이 그동안 좋지 않았는데 상승세다. 중심이 돼야 하는 선수다. 앤서니는 동계훈련부터 마무리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시켜왔다. 경험이 문제거리는 하지만 믿고 맡겨야 한다. 잘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름값을 댄’ 기용을 언급한 선 감독은 젊은 선수들의 역할과 활약에도 기대를 보였다. 중고신인 임준섭과 올 시즌 신인 박준표·고영우 등 ‘루키 3인방’은 시범경기에서 신인다운 패기와 성장 가능성을 보이며 선 감독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선 감독은 “젊은 선수들이 잘해줘야 한다. 그 래야 팀 전력도 좋아지고 분위기도 오른다. 불펜에서 박준표를 키워볼 생각이다. 고영우에게도 올 시즌 계속적으로 기회를 줄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좌익수 김주찬**  
**유격수 김선빈**  
**3루수 이범호**

**중견수 이용규**  
**투수 소사**  
**포수 차일묵**

**우익수 김원섭**  
**2루수 안치홍**  
**1루수 최희섭**  
**지명타자 나지완**

KIA 타이거즈  
 개막전 선발 예상 엔트리

**KIA 예상 타순**

- 1 이용규
- 2 김주찬
- 3 이범호
- 4 나지완
- 5 최희섭
- 6 안치홍
- 7 김원섭
- 8 차일묵
- 9 김선빈

**빛의만정** - 김중두

재·보선용 멘트로는 딱이지

황상제주 불시즌 BIG HIT! 제주여행

3년연속 “올해의 항공사상” 수상! 아시아나항공과 함께하는 짜릿한 제주여행~

## 신비의 섬 “제주 탐방” 투어

광주공항출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왕복 2박3일 (왕복호텔) 1인 ₩229,000~**  
 \*최소인원 : 2명 (매일출발) \*광주발 19:20 / 제주발 19:20 (광주착)

**완도항출발 (블루나래) 1인 ₩169,000~**  
 \*완도발 09:00~10:40 / 제주발 17:50~19:30

**목포항출발 (씨스타크루즈) 1인 ₩155,000~**  
 \*목포발 09:00~13:20 / 제주발 17:00~21:30

**제주도 골프투어 - 항공/선박골프패키지 1박2일**

[명품2회] 테디벨라+블랙스톤 ◆항공/왕복항공(유류세별도) ₩405,000~	[명품2회] 테디벨라+세인트포 ◆항공/왕복항공(유류세별도) ₩385,000~
테디벨라+우리들CC ◆항공/왕복항공(유류세별도) ₩385,000~	[명품2회] 라온+블랙스톤 ◆항공/왕복항공(유류세별도) ₩413,000~

여행사 파트너 모집 광주/전남 T.062-675-0064

환상제주 여행문의 하이센스여행사 350-6222 | 이유여행사 374-1881 | 메이투어 070-7093-0555 | 한별투어 956-0045 | 침단/투어디자인 974-3050 | 무등파크여행사 384-7470 | 동구/다니엘여행사 227-7422 | 고고투어 603-4416